ISSN 1975-6178
『어문논총』 제34호
2019년 2월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omunnonchong* Vol 34. Feb. 2019
http://doi.org/10.24227/jkll.2019.02.34.139

전광용 단편소설 연구
-「꺼삐딴 리」를 중심으로

최창근*

- 목 차 -

Ⅰ. 서론
Ⅱ. 전근대적 관습과 아카데미즘의 결합
Ⅲ. 역사의식의 부재와 운명론
Ⅳ. 지식인의 위기의식과 대응
Ⅴ. 결론

|국문초록|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들은 수많은 담론의 산물이자 과정 그 자체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역사의 격변기를 거치며 살아남은 작품은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1945년의 해방과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일련의 변화는 다양한 가치들이 부상하고 사라진 시간들이기도 했다. 그와 함께 많은 문학작품들이 환호를 받으며 등장했고 또 소리 없이 퇴장했다.

이 혼란 속에서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작품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중 하나로 살아남았으며 1962년에는 동인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동시대 작가들이 실존주의에 상당부분 경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광용은 유행과 거리를 두며 자신만의 문학관을 유지했다. 동인문학상은 꾸준한 노력과 열정에 대한 문단의 인정이다.

그러나 당대를 대표하는 문학상이 오로지 작품 그 자체의 예술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꺼삐딴 리」는 다른 소설에 비해 플롯이 약하고 역사적 관점 역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은 동인문학상 동시 수상자인 이호철이 보완하고 있다.

전광용의 소설은 지식인의 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꺼삐딴 리」의 이인국은 친일파 이전에 기회주의자이자 사대주의자이다. 이인국 같은 인물을 소설화 하는 배경에는 지식인 그룹의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해방 이후 지식인의 위치는 서구근대화와 민족주의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독재정권 역시 지식인의 신념과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전광용은 지식인이나 아카데미즘을 소재로 한 다수의 소설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꺼삐딴 리」나 그 외의 소설들은 문제적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대응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전광용, 이호철, 꺼삐딴 리, 지식인, 아카데미즘, 동인문학상, 독재정권

Ⅰ. 서론

백사(白史) 전광용은 1918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났으며 1955년 소설 「흑산도」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이후 「주봉씨」, 「G.M.C」, 「사수」, 「크라운장」, 「충매화」, 「꺼삐딴 리」, 「세끼미」 등의 단편과 『나신』, 『태백산맥』 등의 장편 소설을 발표하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한편 대학 교수이기도 했던 전광용은 소설과 함께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연구 주제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신소설과 근대문학이었다. 그리고 작품 활동과 연구를 병행하던 중 1962년에 「꺼삐딴 리」로 제7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문학작품은 작가 자신의 세계관은 물론이거니와 민족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 작품들은 수많은 담론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나온 산물이자 과정 그 자체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역사의 격변기를 겪은 나라일수록 살아남은 작품들은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배경에 내재하고 있기 마련이다. 해방과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일련의 숨 가쁜 과정은 다양한 가치들이 부상하고 사라진 시간들이기도 했다. 그와 함께 많은 문학작품들이 등장했으며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 와중에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 중 하나로 살아남았다. 동인문학상 수상은 작가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만하다. 동시대 작가들이 실존주의에 상당부분 경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광용은 유행과 거리를 두며 자신만의 문학관을 유지했다. 동인문학상은 이러한 문학적 성취에 대한 문단의 인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상이 오로지 문학적 완성도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그 배경에 다양한 담론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학사

에서 「꺼삐딴 리」를 중심으로 펼쳐진 담론의 전후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전광용 소설에 대한 연구는 전후 신세대 작가의 창작배경 및 사유의 토대를 분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리라 예상된다. 특히 신세대 작가의 역사 인식과 그 한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세대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이력이 있으면서 독립 이후에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4·19세대의 등장과 함께 신세대작가들은 빠르게 사라지는데 이는 신세대작가들의 전통단절과 과거에 대한 부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근대적 관습과 아카데미즘의 결합

전광용의 소설은 실제 존재하는 현장을 지면으로 옮겨 놓은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가 소설의 소재를 찾아서 직접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취재를 통한 그의 창작은 일종의 저널리즘적인 성격을 획득한 리얼리즘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전광용 스스로도 자신의 소설이 다양한 취재에서 비롯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 내가 쓴 작품에는 현지의 답사에서 힌트를 얻거나 취재된 것이 적지 않다. <흑산도>는 흑산도의 학술 답사에서, <진개권>은 휴전선 오지에 있는 친구의 미군 쓰레기 칸에서, <지층> 은 태백산맥의 탄광에서, <해도초>는 독도 근해 어부에 대한 미군 비행기의 무차별 폭격의 현지 조사에서, <크라운 장>은 비어호올의 노악사에서, <반편들>은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곽서방>은 다도해경호도의 반농 반어촌에서

각각 현지 취재한 작품들이다. 그런가 하면 <동혈인간> 및 <경동맥>은 y여사의 모델에서, <주봉씨>는 L화백의 실화에서, <충매화>는 이웃 의사의 경험담에서, <초혼곡>은 K씨의 소년 시절 회고담에서, <면허장>은 어느 소녀의 고백에서, <벽력>은 거리의 샌드위치맨 광고에서, <퇴색된 훈장>과 <영 1 2 3 4>는 시정의 낙수에서, 그리고 <꺼삐딴 리>와 <의고당실기>는 주변에 흩어진 군상 속에서 각각 힌트를 얻은 것이다. <사수>는 우리 주변 특히 가까운 친구 사이에 잠재할 수 있는 델리킷한 인간 관계를 테에마로 하여 전연 가공적인 허구에서 엮은 작품이다[1]

직접 발굴한 다양한 소재는 그의 소설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탄탄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체는 기존 소설과는 다른 경지를 이룬다. 얄팍한 감각적 대화를 통해 말초적 신경으로 전달되는 쾌감의 사상도 없고 묵직한 관념의 유추에서 흘러나온 사상의 분신도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극히 전형적 속성을 바탕으로 리얼리티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2]

또한 그의 소설은 문학과 아카데미즘의 결합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흑산도」는 본인이 학술 답사에서 취재한 것이 바탕이 되었으며 이외에도 지식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몇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본인 역시 소설가와 교수로 활동하며 문학작품과 연구논문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던 점은 그가 아카데미즘과 분리불가능한 처지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소재 중심의 창작방법은 플롯 중심의 소설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방식이며 그의 소설이 개연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소재 위주의 소설은 전형적 인물의 창조에 실패할 위험이 높

1) 전광용, 「구슬이 서 말이라도」, 『한국현대문학전집 5』, 1965, 488쪽.
2) 박동규, 「현실의 나신」, 『한국현대문학전집 31』, 삼성출판사, 1981, 441쪽.

다. 그의 창작관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의 인물을 찾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이고자 했거나, 당대 현실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자 했거나 간에 뚜렷한 인물의 전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현실인식을 통한 인물의 구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3]

그러나 그의 대표작 「꺼삐딴 리」에 이르러서 전광용은 일정한 전형성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이인국이라는 인물은 근대화과정에서 보신적인 처세술만으로 그때그때를 모면해 온 인간형의 표본이다.[4] 지식인으로서의 명예와 의무를 져버리고 권력과 부를 쫓는 그의 일생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다. 기회주의와 함께 「꺼삐딴 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의식은 사대주의이다. 주인공 이인국은 해방이후 한반도에 주둔한 소련군 장교나 전후 군정시기의 미국 대사와 친분을 유지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나간다. 이는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약소국의 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특권계층이 가지고 있던 무분별한 사대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시키고 그는 아들의 유학을 관철하였다.
>
> '흥, 혁명 유가족두 가기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구 보자…….'
>
>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5]

소설기법적 면에서도 「꺼삐딴 리」는 다소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3) 윤석달, 「변경의 삶과 시대의 초상-전광용론」,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212쪽.
4) 천상병, 「근대적 인간유형의 축도-꺼삐딴 리」, 『한국현대문학전집 5』, 1965, 480쪽.
5) 전광용, 「꺼삐딴 리」, 『전광용문학전집 1』, 태학사, 2011, 305쪽.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적으로 제시되며 회상의 방식으로 과거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 소설만이 아니라 「사수」에서도 소설의 진행이 대부분 현재의 순간과 과거의 장면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가운데 인물의 행위가 인과적 계기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기억이 겹쳐지면서 만들어지고 있다.[6] 이는 전근대문학의 고유한 성격인 시간의 순차적 배열과 경험적 시간순서에 의한 서사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성은 플롯의 부재를 해결하면서 극적인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꺼삐딴 리」는 인물들 간의 갈등과 긴장의 요소가 부족하며 소설도 이인국의 일생에 대한 회고에 가깝다. 회고에 그치다 보니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극을 이끌어가는 힘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우연과 조력자의 도움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전근대적 문학의 전형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단지 약간의 변주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수」에서는 친구 사이이자 라이벌인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역시 인과적 플롯은 부재하고 있으며 단지 그때그때의 장면과 상황 그리고 주인공의 감정과 생각만이 드러난다.

많은 부분에서 전광용의 소설은 현대소설보다는 전근대적 문학의 틀 안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근대성을 극복하는데 그의 아카데미즘적 소재 채취와 학자로서의 비판정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광용의 문학은 1962년 동인문학상을 받음으로써 문단 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사상계』사가 주관한 동인문학상은 당시로서는 명실상부한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해 작가 한 명을

6) 권영민, 「「꺼삐딴 리」의 인간상」, 『교수아카데미총서』8(1), 일념, 1995, 197쪽.

선정해 수상을 했다.

Ⅲ. 역사의식의 부재와 운명론

6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 중 하나이지만 「꺼삐딴 리」는 사건의 논리적 귀결에 의한 개연성이 부족하고 우연에 의한 문제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교차적 제시는 전광용 소설의 한 특이성으로 인정받는 면이 있지만 역사를 인과적 과정에 의한 발전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서사의 이면에는 역사의식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역사의 내재적 진행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전광용 소설의 가장 큰 한계이다. 이인국에 대한 비판이 철저하지 못한 점, 사대주의와 기회주의 속에서 친일이 희석되는 점 등은 친일 청산이 실패한 한국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비단 전광용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꺼삐딴 리」에 대해 평하는 평론가조차도 이인국의 행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대신 그의 선택을 일정부분 옹호해주고 있다.

> 이들은 어이 없는 배덕한이요, 마키아벨리스트이다. 그러나 그들을 한마디로 나무랄 수만도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스스로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변전하는 우리 역사가 자꾸만 변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나타난 국면 앞에서 지조를 지키려고 해 보라. 저항을 시도해 보라. 그 댓가는 너무나도 빤하다. 투옥을 당하지 않으면 불우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국면을 체념적으로 묵인하거나 재빨리 적응해야만 한다. <이인국>이나 그 밖의 변절자도 결국은 우리역사의 특수성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7]

이인국이라는 인물은 작가의 창조물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인물에 가깝다. 그리고 한 명의 구체적 인물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집단을 형상화 한 것이다. 결국 해방 이후에도 살아남은 친일 세력이 여전히 자본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에 상황논리가 변명처럼 뒤따를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 「꺼삐딴 리」는 이인국 박사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면죄부의 성격이 강하다.

역사의식의 부재는 다른 소설에서도 발견된다. 소설 <사수>에서 두 주인공은 전쟁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인물의 이념적 대결이 아닌 순수하게 개인적인 경쟁심만이 부각되고 있다. 친구 사이의 평생에 걸친 대결과 복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역사의 중요한 사건마저 두 인물의 갈등을 야기하는 배경으로 단순화시켜 버린다.

> 구령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빵'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 B와의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총신이 위로 퉁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화약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 때는 이미 B는 다른 네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8]

친구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에도 주인공의 의식은 대결의 승패에

---

7) 정창범, 「인간회귀와 리얼리티」, 『한국단편문학대계 9』, 삼성출판사, 1968, 434쪽.
8) 전광용, 「사수」, 『전광용문학전집 1』, 태학사, 2011, 176쪽.

만 집중되어있으며 정작 B가 무슨 일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는지는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적적인 모반'이라는 다소 모호한 설명과 사변통 이었다는 단서를 통해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전후문학이나 실존주의 문학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던 전쟁을 전광용은 일정하게 비껴서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주체인 나를 제외하고는 친구의 이름도, 역사적 현실도 흐릿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소설 「광장」을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광장」의 이명준이 자신의 옛 애인을 차지한 친구에게 가지는 원망은 개인의 원한을 넘어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 순간 그의 팔이 들리며 태식의 안면을 강타했다. 수갑이 채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쓰러지는 태식을 발길로 걷어찼다. 태식의 얼굴은 금시 피투성이가 됐다. 그 핏빛은 몇 년 전 바로 이 건물에서 형사의 주먹에 맞아서 흘렸던 자기의 피를 연상시켰다. 그는 그때 형사가 하던 것처럼 태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또 한번 얼굴을 갈겼다. 흡사 자기 몸에 그 형사가 옮아 앉은 것 같은 환각이 있었다.(인간이 인간의 육체를 학대하는 습관은 이처럼 몸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것이구나). 그는 발을 들어 마루에 엎어진 태식의 아랫 배를 차 질렀다. 꼭 제 몸이 허수아비 놀 듯 자기와 육체의 짜증스런 괴리가 있었다. 그는 그 틈새를 없애기 위해 쉬지 않고 팔과 다리를 놀렸다.[9]

「광장」은 한국 사회가 지나온 폭력의 역사를 명준과 태식 두 친구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구도를 만든 좌우이데올로기

9) 최인훈, 『광장』, 정향사, 1961, 167쪽.

의 갈등과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조차도 작가 최인훈은 개작을 통해 폭력 장면을 꿈속에서 있었던 일로 바꾸어 버린다.

> 윤애를 벽에 밀어붙인다.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벽에다 붙박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저고리 동정에 손가락을 걸어 아래로 잡아 찢는다. 앞죽지가 떨어져나간다. 그때 어디선가 새 우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꿈을 깬다. 그것이 꿈인 것을 안 순간의 다행스러움. 행복. 이런 일은 없었다는 확실함에서 오는 행복. 이런 일은 없었다니 얼마나 좋은가. 꿈속의 피멍이 든 태식의 얼굴. 겁에 질린 윤애의 하얀 얼굴. 숨을 몰아쉬는 하얀 가슴. 그런 일은 없었다. 아무리 생생해도 그것은 꿈이었다.[10]

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몸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작가의 결단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11]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뀜에 따라 소설을 개작해 나가는 최인훈의 행보 자체가 역사주의적 의식의 반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사수」에서 전쟁이라는 상황은 오직 서사적 장치이자 배경에 불과할 뿐이며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싸움은 역사와는 무관한 두 사람만의 개인사로 한정된다.

역사의식의 부재는 갈등을 개인과 자연 또는 개인과 운명의 구도 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환하는 현상에서도 발견이 된다. 자연이나 운명 같은 비사회적 요소를 불행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광용 소설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의 소설에서 심리적 문제, 그 중에서도 열등감은 중요한 요소이다. 대

10) 최인훈, 『광장/구운몽』 7판, 문학과지성사, 2016, 178쪽.
11) 최윤경, 「『광장』 개작의 의의: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현대문학이론연구』5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69쪽.

표적으로 <충매화>와 <초혼곡>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충매화>의 주인공 '충'은 사생아이면서 소아마비라는 장애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초혼곡>의 주인공은 서해안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 화려한 서울을 경험하며 열등감에 빠진다.

> 학교에서 학우들 간에 있어서도, 서울의 이름난 명문거족이거나 세상에 널리 알려진 거부의 자녀들에 대하여도 나의 이 같은 열등감은 그대로 연장되어 나는 그들과 터놓고 사귀지를 못하였거니와, 그들도 떼거지로 밀려들어온 아무 고등학교 출신의 간판을 내어걸고 텃세를 하는 판국에 나 같은 외톨박이 시골출신으로는 그들과의 친숙한 교류란 엄두도 낼 수 없었다.12)

한편 자연과의 갈등을 서사의 중심에 두는 관점은 죽음관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게 죽음은 우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 불가능성의 영역에 있다. 즉 죽음을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분리해 순수하게 자연화 시킨 것이다. 전광용 소설 속의 죽음은 대부분 재난에 의해 또는 자연의 거대한 힘에 의해 발생한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은 사람들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때 죽음은 타인의 몫으로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지 못한 채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집착만을 강화할 뿐이다.13)

전후의 신세대 작가들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이나 독재정권의 억압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인물을 다루었다. 가난, 폭력, 산업화 등에 의한 죽음은 결국 부조리한 사회가 개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인식이 반

12) 전광용, 「초혼곡」, 『전광용문학전집 1』, 태학사, 2011, 237쪽.
13) 김종욱, 「전광용의 소설에 나타난 삶의 윤리」, 『개신어문연구』27, 개신어문학회, 2008, 182쪽.

영되어 있다. 그러나 전광용은 죽음을 마치 삶의 일부이자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묵묵히 참고 견디는 고행과 금욕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삶의 고난을 삶의 신비로 만든다. 삶의 자연화와 죽음의 미화는 현실의 폭력을 은폐하는데 상당부분 이바지하고 있다.

전광용 소설에서 아버지 또는 남편의 부재는 단절의 의미를 한층 더 강화해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전후 소설에서 남성의 부재는 흔하게 등장하지만 이는 남성의 부재가 전쟁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 가난과 성적 착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광용에게 남성 부재 특히 부모의 결핍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전광용 소설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척박한 현실 보다는 세상에 내던져진 주인공의 불공평한 상황을 대변하는 것에 가깝다. 그의 소설에서 부모는 부재할 뿐만 아니라 유전적/선천적 문제를 남긴다. 혼혈, 사생아, 신체장애 등의 한계를 가진 주인공은 자신의 불행을 부모에게서 직·간접적으로 물려받았다. 「충매화」의 주인공 충은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겪고 장애를 가지게 된다.

> 소아마비
>
> 뚜렷한 병명을 달아 확실하게 진단이 붙여진 것은, 다리가 거의 고질화되어 걸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뒤의 일이었다.
>
> 처음에는 자기의 모호한 혈통에 대한 비굴감이 여기에 겹쳐 이중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졸라매어들었다.[14]

14) 전광용, 「충매화」, 『전광용문학전집 1』, 태학사, 2011, 220쪽.

「세끼미」의 마리아는 혼혈아로 태어나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된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한계는 그대로 부모세대에 대한 혐오와 단절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열등감은 본질적으로는 전통과 분리된 채 비자발적 근대화를 겪어야 했던 한국인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서구라는 타자 앞에서 왜소해지는 60년대 한국사회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 종합한다면 이는 역사의 주변부에 있는 한국의 지리적 특수성과 뒤쳐진 근대화 속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주체의식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지식인의 위기의식과 대응

이쯤해서 전광용의 소설 특히 「꺼삐딴 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근대적 민족주의 잡지 「사상계」가 전광용의 소설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이유 역시 작품에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1962년의 동인문학상이 전광용과 이호철의 동시수상이라는 점은 한편으로는 특이하지만 그 이유를 곱씹어 보게 한다. 동인문학상 동시수상은 분명 흔한 일은 아니었다. 『사상계』사가 동인문학상 시상을 주관한 1967년의 제12회까지 동시수상은 전광용과 이호철이 유일하다. 그 이전인 1960년에 서기원의 「이 성숙한 밤의 포옹」과 이범선의 「오발탄」이 동시수상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때는 심사위원들이 당선작을 결정하지 못하고 후보작으로 대신한 경우였다.

이호철에 대한 평가는 그의 소설가적 면모에 집중되어 있다. 김윤식은 이호철 소설의 예술적 가치를 보다 적극 옹호한다. 동시에 이호철에 대해 역사의 기록자로서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 비판적인 것이란 또한 역사적인 것이기도 한데, 곧 '분단 문제'가 역사에 대한 변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점이라 할 수 있는 <나상>, <탈향>은 소설가와 예술가가 균형감각을 취한 것이었으며, 그 균형 감각이 소설가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것이 <판문점>이었다. 이 점에서 <판문점>은 한편으로는 도전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균형 감각의 파탄으로서의 위험성이기도 하였다. 균형감각 회복을 위해 씌여진 것이 <닳아지는 살들>인 만큼 여기에는 예술가의 얼굴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군림하고 있다[15]

김윤식의 평을 고려한다면 역사성과 예술성 모두를 이호철에게서 충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독자가 소설에 요구하는 중요한 두 요소 모두를 이호철에게서 만족할 수 있다면 전광용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덧붙여 이호철의 소설 <닳아지는 살들>이 예술적 요소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 안에도 한반도의 역사적 특수성은 그 배경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다.

어떤 소시민 가정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저녁이 배경이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만든 것은 전쟁과 혁명을 지나온 이 땅의 역사이다. 그들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쌓이고 퇴적된 삼각주에 유폐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모더니즘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지만 「닳아지는 살들」은 현대사의 아픔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점에서 리얼리즘적 소설이라 할만하다. 그에 비하면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외형상은 역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역사의식의 부재에 가깝다.

여기서 다시 전광용 소설의 의의를 찾기 위해 「꺼삐딴 리」의 주인공 이인국 박사에게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설에서 그려지는 이인국 박

15) 김윤식, 「소설가와 예술가의 갈등-이호철의 작품세계」, 『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및 작품론』, 새미, 2001, 103쪽.

사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시류에 편승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이자 이기주의자이다. 그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양심을 판 지식인에 맞춰져 있다. 이를 근거로 「꺼삐딴 리」가 지식인 계급의 성찰 또는 지식인상의 재정립과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사상계의 심사위원들도 전광용 소설의 한계를 비교적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 전광용 씨의 <꺼삐딴 리>는 작품의 주제적인 의미에 액슨트를 둔 작품, 혹은 하나의 인간상을 그리는데 주안을 둔 작품, 그 점에서 이 작품은 패턴을 근대소설에서 옮겨 온 것이지만 그러나 작품구성에선 현재에서 과거를 몬터주하는 현대식의 수법을 동용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도모하였다. 작품의 효과는 어떤 현실적인 의미를 실감케 하는 것.[16]

전광용의 소설이 현대적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의례적 언급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오히려 예술적인 부분은 동시수상자 이호철이 상당부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호철에 대해서는 '제작과 테크닉에 의식을 쓴 작품'이자 '패턴은 현대소설을 따른 것', '「꺼삐딴 리」와 대조적인 작품' 이라고 비교하고 있다.[17] 결국 백철의 심사평은 전광용 소설이 높이 평가받은 요소가 '주제적 의미'와 '하나의 인간상'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시의성에 있을 것이다.

안수길의 평은 당대의 문단 주류가 실존주의나 모더니즘의 형식적 실험에 대해 뿌리 깊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수법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낡은 것이라고 덮어 놓고 밀어놓으려는

16) 『사상계』 112호, 사상계사, 283쪽.
17) 『사상계』 112호, 사상계사, 283쪽.

고전적 사실주의를 채택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충매화>가 문제된 일이 있다고 기억되는데 그 작품보다 훨씬 겸허한 의도로 씌여진 것이 <꺼삐딴 리>라고 생각한다. 욕심을 말한다면 밀도에 아쉬운 점이 없지않으나 어떻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나머지 제재나 수법상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작단일부에 반성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한다.[18]

여석기의 평도 눈길을 끈다. 이인국 박사로 대표되는 사대주의적 지식인을 부각하는 의도는 잘 드러나 있으나 구성 면에서 치밀함이 부족하다는 평은 플롯의 빈곤함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작품이 당시 유행하는 형식적 실험에 빠지지 않아 안정적이고 선명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 할 만하다고 평하고 있다.

<꺼삐딴 리>는 우리가 흔히 보아온 사대적전형을 부각시켜보자는 야심작인데 그 정공법적 묘사나 구성이 어쩐지 밀도의 희박성을 지니고 있다는 비평과 반면에 이러한 구질구질하지 않은 작품이 앞으로 좀 더 권장되어야겠다는 발언이 다 같이 있었는데 필자도 동감이다

<닳아지는 살들>은 매우 투명한 작품세계가 심리의 추적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어 읽고난 뒷맛이 산뜻하다. 체홉적이라는 의견과 앙띠로망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 다같이 나왔으나 필자는 이 작품을 그 암시와 생략의 수법과 명암의 교착이 선명한 분위기 조성, 그리고 디테일(쇠붙이 소리라든가 오빠의 안경알 같은)의 솜씨 있는 처리까지 포함하여 현대심리소설의 정통에 따른다고 보았다[19]

황순원은 비교적 짧은 평을 남겼지만 두 작가를 비교하는 언급에서

18) 『사상계』 112호, 사상계사, 283쪽.
19) 『사상계』 112호, 사상계사, 284쪽.

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진다. 전광용에게는 한 세계의 창조를 주문하지만 이호철에게는 완성한 세계를 계속 밀고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다. 전광용이 완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면 이호철은 완성된 세계에 있다.

>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그런 유형의 한 인간상을 그리기에 성공한 작품이다. 본디 작자가 지니고 있는 문장력도 이 작품에서 유효하게 발휘됐다고 본다. 앞으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작자 특유의 한 세계를 이룩하기를 바란다. 이호철의 닳아지는 살들도 이 작자로서 정점을 이룬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언어를 쌓아올려 하나의 상징적인 세계로 이끈 수법 이 작자도 현재의 자세를 그냥 밀고 나가기 바란다[20]

이상의 평을 종합한다면 전광용의 동인문학상 수상은 주제와 인물의 형상화 덕분인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본인이 국문과 교수이기도 했던 전광용은 1960년대부터 지식인이 주인공인 소설을 몇 편 발표하고 있다. 교수직의 정년이 줄어들어서 은퇴한 어느 노교수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 「남궁박사」가 『대학신문』에 1962년 발표되었고, 5·16이후 지식인의 현실참여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장편 『창과 벽』이 1967년에 나온다. 「남궁박사」 에서는 지식인이 처한 위상의 하락과 경제적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창과 벽」에서는 세속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지식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출세 지향의 기회주의적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이인국 박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창과 벽」이 5·16 이후라는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권력을 지향하는

20) 『사상계』 112호, 사상계사, 285쪽.

지식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남궁선생」은 일생동안 학문에 몸 바친 노교수의 이야기를 담담히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한 군데 눈에 띄는 서술이 있다. 바로 남궁선생이 살아온 과거에 대한 간략하고 압축적인 묘사부분이다.

> 일인들이 가장 적대시하던 역사학, 그 중에서도 조선사 연구, 사위는 온통 적에 둘러싸인 것 같은 상아탑의 분위기…….
>
> 그러나 새로 발표하는 논문 하나하나에 얼마나 삶의 보람을 느꼈던가.
>
> 지질려 살던 연륜 속에서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 일찍 다가온 해방. 이제 참말 네 활개를 치고 큰 숨을 쉬면서 일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감격과 흥분에 젖었던 시기. 있는 것, 가졌던 것이라곤 아낌없이 다 털어주고 싶던 순수하고 적나라하던 심정.
>
> 사상적인 대립, 남북협상 문제로 들끓던 연구실이 겨우 자리잡혀가던 무렵, 태풍처럼 휩쓴 사변, 가장 아끼던 동료와 지기가 납치되고 계속되는 피난살이, 수복된 폐허에서의 재기…….[21]

일제강점기부터 전후의 재건 시기까지가 단 몇 줄의 단편적 인상과 요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장면은 혼란스러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오직 학문과 연구에만 정진한 남궁박사의 삶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속적 가치와 무관하게 살아온 남궁박사의 일생은 어떤 면에서 이인국과 동전의 양면처럼 비슷하다. 남궁박사는 명예욕이나 권력욕,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갇혀 있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학문에만 매진한 인물이다. 반면 이인국도 수많은 변절 속에서도 '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라는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

---

21) 전광용, 「남궁박사」, 『전광용문학전집 1』, 태학사, 2011, 355쪽.

남궁박사와 이인국은 혼란의 시기를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온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인물들이다. 이 둘은 지식인의 현실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식인 계급은 어떤 곳에도 쉽게 속하지 못하는 집단으로서 정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현실과 타협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지식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으며 격변기에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반대로 신념을 지키는 경우에는 권력의 감시와 억압이 가해진다. 독재정권은 비판적 지식인들의 입지를 축소하고 아카데미즘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극대화한다.

1960년대는 위기가 더욱 복잡다단해진 시기였다. 특히 조국근대화에 대한 열망은 지식인에게 딜레마의 상황을 제공한다. 4·19혁명의 유산과 박정희 독재정권 속에서 지식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양대 가치를 두고 격하게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화를 위해 독재정권에 참여할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포기할지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단순화 할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지식인의 정체성은 정치권력과의 치열한 경쟁과 은밀한 거래 과정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불러오는 일이기도 했다.

일례로 5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한글간소화파동은 지식권력과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부딪힌 중요한 사건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 대통령 이승만은 한글 표기를 조선시대 말기식의 간소한 방식으로 되돌릴 것을 지시했으며 그 결과 정부가 한글간소화 3원칙[22]을 제시했

22) 한글 간소화안의 3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바침은 끗소리에서 발음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종래 사용하던 바침가운데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ㄹㄱ, ㄹㅁ, ㄹㅂ 등 十개만을 허용한다. 다만 바침으로 사용될때의 『ㅅ』의 음가는 『ㄷ』의 음가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ㄷ"은 바침으로는 아니 쓴다.
2. 명사나 어간이 다른 말과 어울러서 딴 독립된 말이 되거나 뜻이 변할 때에 그 원사(原詞) 또는 어원(語源)을 발키어 적지 아니한다.
3. 종래 인정되어 쓰이던 표준말(標準語) 가운데 이미 쓰이지 안커나 또는 말이 바뀌어진 것은

다. 이는 일제 강점기부터 국어학자들이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문법과 맞춤법을 모두 백지화하고 표기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지식인과 학자들의 거센 반대를 불러온 사건이었다. 한글 간소화는 이승만의 전근대적 의식이나 권위주의에 대한 해프닝이기 이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비판하는데 집중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23] 결과적으로 한글간소화는 이들의 반대에 막혀 백지화되었다. 이 일은 지식 권력이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독재권력의 견제에 성공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기회주의적 지식인에 대한 반감은 친일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당대적인 감정에 더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체제적이고 반정부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사상계의 경우 이는 특히 더 강했으리라 짐작된다. <사상계>는 영향력 있는 지식인 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다. 그들은 암울한 현실에서 조국 근대화의 막중한 임무를 각성해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엘리트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부패하고 이기적인 지식인이라는 오명을 쓸 위험은 멀리 있지 않았다. 또한 서구식 근대화를 추구했던 한국사회에서 사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지식인들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권력을 좇는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히거나 권력에서 배제되어 무능한 지식인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다수의 보수지식인들이 정권에 포섭되고 반면 반정부인사들은 정치교수라 낙인찍혀 대학에서 축출되기도 했다[24] 실질적인 위험은 지식인의 실천과 행동을 제약했다. 지식인이 납득할 만한 정당성을 찾고 그것이 확보될 때

그 변천대로 적는다.(『동아일보』, 1954.07.06)

23) 이용성, 『사상계와 비판적 지식인잡지 연구』, 한서대학교출판부, 2012, 84쪽.

24) 이용성, 『사상계와 비판적 지식인잡지 연구』, 한서대학교출판부, 2012, 120쪽.

까지 쉽게 행동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25] 그러므로 이인국 박사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설득력 있는 형상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V. 결론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창작되고 발표된 당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그런 점에서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소설이다. 이 소설의 성과를 순전히 예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 소설의 온전한 의미를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꺼삐딴 리」는 이인국이라는 친일 지식인의 행로를 그리고 있지만 이인국은 단지 친일파가 아니라 기회주의적 지식인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이유로 이 소설의 초점은 친일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기회주의적 지식인에 대한 경고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전광용의 소설이 비역사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전광용의 소설은 대부분 개인과 자연, 개인과 운명의 갈등을 그리고 있으며 죽음관 역시 운명론적이다. 죽음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부조리와는 거리가 멀고 급작스러우며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꺼삐딴 리」는 해방 이후 지식인의 위상과 관련이 깊다. 해방과 전쟁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지식인의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성 등이 「꺼삐딴 리」에 반영되어 있다. 지식인은 언제나 정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

25) 정영진, 「'사회'의 문학·반행동주의·아카데미즘-1950년대 『사상계』의 문학성 인식과 최재서의 전략」,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3, 416쪽.

다. 해방이후의 지식인은 근대화를 위해 현실에 참여하거나 독재권력과 거리를 두는 두 가지 상황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비난과 찬사가 함께 따라왔다. 『사상계』가 동인문학상을 전광용에게 수상한 이유, 그리고 이호철을 동시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상으로 「꺼삐딴 리」와 「사수」 등 몇 편의 단편을 중심으로 전광용 소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전광용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편이다. 이는 그의 소설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시의성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꺼삐딴 리」를 포함해 그의 다른 많은 작품으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전광용, 『전광용문학전집』, 태학사, 2011

최인훈, 『광장』, 정향사, 1961.

최인훈, 『광장/구운몽』 7판, 문학과지성사, 2016.

『사상계』, 사상계사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권영민, 「「꺼삐딴 리」의 인간상」, 『교수아카데미총서』8(1), 일념, 1995, 195~204쪽

김윤식, 「소설가와 예술가의 갈등-이호철의 작품세계」, 『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및 작품론』, 새미, 2001.

김종욱, 「전광용의 소설에 나타난 삶의 윤리」, 『개신어문연구』27, 개신어문학회, 2008, 173~195쪽.

박동규, 「현실의 나신」, 『한국현대문학전집 31』, 삼성출판사, 1981.

윤석달, 「변경의 삶과 시대의 초상-전광용론」,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이용성, 『사상계와 비판적 지식인잡지 연구』, 한서대학교출판부, 2012.

전광용, 「구슬이 서 말이라도」, 『한국현대문학전집 5』, 1965.

정영진, 「'사회'의 문학·반행동주의·아카데미즘-1950년대 『사상계』의 문학성 인식과 최재서의 전략」,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3

정창범, 「인간회귀와 리얼리티」, 『한국단편문학대계 9』, 삼성출판사, 1968

천상병, 「근대적 인간유형의 축도-꺼삐딴 리」, 『한국현대문학전집 5』, 1965.

최윤경, 「『광장』 개작의 의의: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현대문학이론연구』5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55~382쪽.

<Abstract>

A Study on Jeon Gwang-yong's Short Stories

- Focusing on *Kapitan Lee*

Choi, Chang-geun

Representative works of literature of certain period are the result and also process of numerous discourses. Especially, in the country that went through a period of rapid changes, the works of Korean literature connote a variety of ideologies. Diverse values rose and fell during the time of liberation in 1945, the Korean War,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Many works of literature appeared with cheers and vanished with silence in the period.

Kapitan Lee survived as one of the classic literary works through turbulence, and was honored with the Dong-in Literary Award in 1962. Jeon Gwang-yong maintained distance from trends and adhered to his point of view on literature, even though his contemporary writers were inclined towards existentialism. Granting the Dong-in Literary Award was the appreciation of his consistent endeavor and passion.

It seems necessary to think, however, that the literary award was not solely determined by the quality of the work. *Kapitan Lee*'s plot is comparatively loose, and also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of the

work is unsatisfactory. The co-winner of the award, Lee Ho-cheol, supplemented the shortcomings.

Jeon Gwang-yong's novels are correlated with the status of intellectuals. Lee In-guk of *Kapitan Lee* is not only a pro-Japanese, also an opportunist and sycophant. The background of novelizing the character Lee In-guk originated from intellectuals' crisis awareness. After liberation, the intellectuals were in a dillema, standing between modernization and nationalism. The dictatorial regime was also restriction on their principles and movements. Jeon Gwang-yong published a number of novels concerning intellectuals or academism in this period. Therefore, *Kapitan Lee* or other novels are narratives that address the reactions of intellectuals to the difficult times.

Key words: Jeon Gwang-yong, Lee Ho-cheol, *Kapitan Lee*, Intellectuals, Academism, The Dongin Literary Award, Dictatorial regime

이 논문은 2019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2월 2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9년 2월 1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